

‘조용한’ 갤럭시 S6

열흘간 국내 판매 20만대...예약판매 못미쳐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국내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S6엣지의 지난 열흘간 국내 판매량이 예약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갤럭시 S6 시리즈 총 판매량은 20만대를 조금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판매량 30만대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시 이후 실구매 규모가 늘지 않고 오히려 예약판매분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초반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케이스, 보호필름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갤럭시S6의 인기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대박론’에 의문이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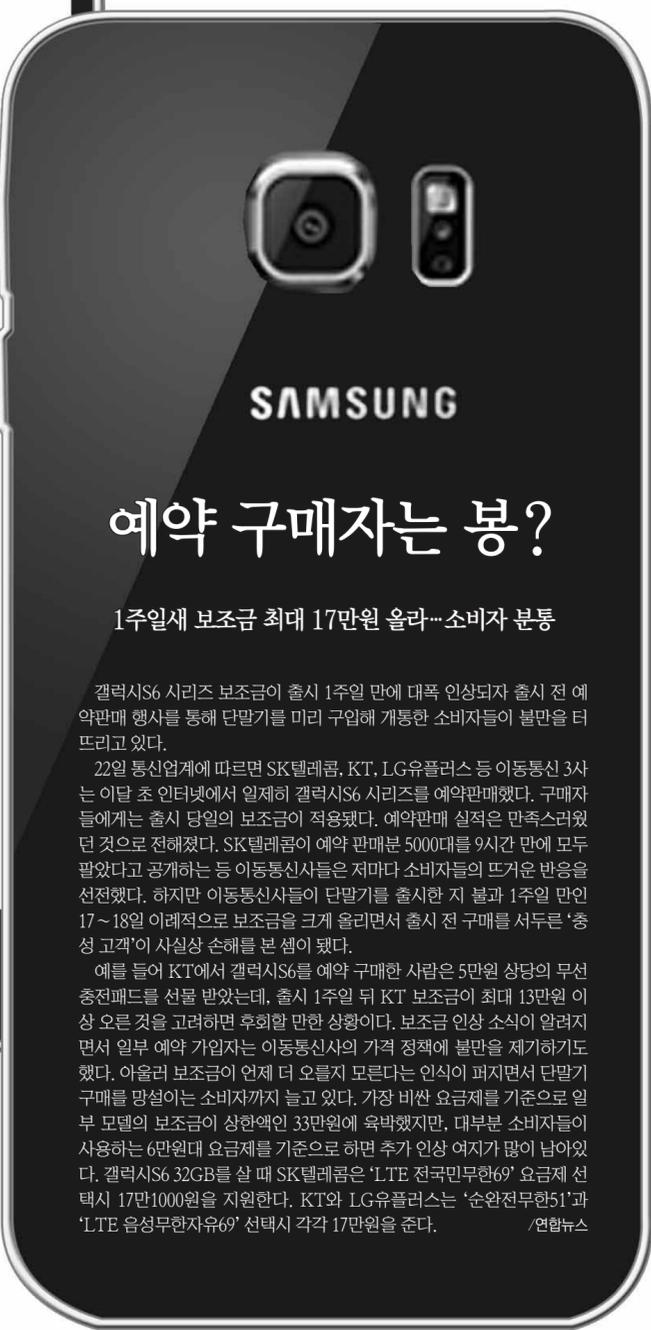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열풍을 일으킨 아이폰6 때만 하더라도 전용 케이스나 액정 보호필름 업체 또한 물량이 달리는 조짐을 보이지만 갤럭시S6의 경우 액세서리 업체 분위기를 보면 전자 갤럭시S5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갤럭시S6 시리즈는 실적 회복에 나선 삼성전자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국내 언론이 ‘갤럭시S6의 효과’를 일찌감치 예단하고 부풀려 보도한 것이 거품 낀 대박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언론 띄우기로 인한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시장 판매량과 관련해 호평 일색인 외신을 인용한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온 것도 ‘7000만대 돌파’의 대박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물론 갤럭시S6 시리즈가 갤럭시S5보다는 출시 초반 분위기가 좋다는 게 이동통신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전자 갤럭시S5는 삼성의 역대 최대 실패작으로 낙인이 찍힌 모델이지만 출시 초반에는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5는 국내 출시 후 열흘간 하루 평균 판매량이 1만3000대 가량으로 갤럭시S6와 엣지의 절반을 상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예약 구매자는 봉?

1주일세 보조금 최대 17만원 올라...소비자 분통

갤럭시S6 시리즈 보조금이 출시 1주일 만에 대폭 인상되자 출시 전 예약구매 행사를 통해 단말기를 미리 구입해 개통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초 인터넷에서 일제히 갤럭시S6 시리즈를 예약판매했다. 구매자들에게는 출시 당일의 보조금이 적용됐다. 예약판매 실적은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예약 판매분 5000대를 9시간 만에 모두 팔았다고 공개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은 저마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선전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출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인 17~18일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크게 올리면서 출시 전 구매를 서두른 ‘충성 고객’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 됐다.

예를 들어 KT에서 갤럭시S6를 예약 구매한 사람은 5만원 상당의 무선 충전패드를 선물 받았는데, 출시 1주일 뒤 KT 보조금이 최대 13만원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후회할 만한 상황이다. 보조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예약 가입자는 이동통신사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언제 더 오를지 모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말기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까지 늘고 있다. 가장 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일부 모델의 보조금이 상한액인 33만원에 육박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6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 인상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갤럭시S6 32GB를 살 때 SK텔레콤은 ‘LTE 전국민무한69’ 요금제 선택시 17만1000원을 지원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순환전무한51’과 ‘LTE 음성무한자유69’ 선택시 각각 17만원을 준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결합상품 60%가 만족”

(이동전화+인터넷TV+인터넷전화)

소비자단체협 인식조사...“개별상품 요금보다 저렴”

이동전화와 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60%는 가격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6~10일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1000명 중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862명으로 이 중 결합상품 이용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60%(매우 만족 8.5%, 만족 51.5%)로 나타났다. 최근 밝혔다. 결합상품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반응은 34.5%,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5.6%(불만족 4.9%, 매우 불만족 0.7%)에 그쳤다. 결합상품에 만족하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69.4%는 서비스 가격이라고 답했고 38.4%는 품질, 10.1%는 사은품 혜택(복수응답)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9.3%는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개별상품에 각각 가입하는 것에 비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6.2%는 요금인하 효과가 작다고 답했다. 결합상품 가입 때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서비스 가격(91.9%)과 품질(78.7%), 사후 관리(37.1%), 사은품 및 혜택(36%), 브랜드 이미지(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서비스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IPTV, 인터넷전화, 유선전화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정부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데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4.6%는 정부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한다”며 “관련 정책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결합상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결합상품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방송위는 특히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과다 할인 금지 등을 관련 법 고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주의 추천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선명하다. 세월호 참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남은 이들의 몫일 것이다. 오늘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0416 노란리본/제작: KimJeongHun/아이폰, 안드로이드
0416 노란리본은 휴대폰의 알림창과 위젯에 노란리본을 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앱이다. 지도모기를 통해 내 주변에 리본을 단 사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



노란리본/Designer Bruce Kim /안드로이드
국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인 카카오톡의 테마를 노란리본 형태의 테마로 바꿔주는 앱이다.



세월호 시계 / 제작: Sure Bak /안드로이드
세월호 시계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잠금화면을 바꾸어주는 앱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관련 일지를 해당하는 시각에 맞게 보여주며, 2014년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에 해당하는 D-day를 표기한다.



DESIGN ZOOZ 제공: 디자인주소
ZOOZ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	---------------------------------------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